

'전통장신구, 한국 고유의 멋부림'

익산보석박물관, 10월 9일까지 기획전시... 금박댕기·금관자·은대구·대모갓끈 등 70점 공개

궁중에서 사용하던 화려한 금박 댕기부터 대나무로 만든 작은 칼까지, 우리 선조의 세련된 멋을 느낄 수 있는 '케이(K)-전통 장신구' 전시가 익산에서 열린다.

익산시는 익산보석박물관에서 26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기획전시 '전통장신구, 한국 고유의 멋부림'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통 장신구를 재질별로 분류해 총 70점을 선보인다. 보석과 귀금속의 매력을 조명해 오늘날 K-문화의 원조격인 우리 선조들의 예술성을 만날 수 있다.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1부 '보석류' △2부 '금속류' △3부 '기타류'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1부 '보석류'에서는 신분과 품격을 상징하는 '옥'을 비롯해 산호·호박·수정·진주 등으로 만든 장신구가 소개된다.

특히 '영친왕비 백옥나비 원형열장'은 국가 무형유산 옥장 김영희가 제작한 작품이다. 옥관 위에 진주, 산호, 자마노 등으로 장식해 궁중 예물의 화려함을 보여준다.



익산보석박물관에서 오는 10월 9일까지 기획전시 '전통장신구, 한국 고유의 멋부림'을 개최한다.

2부 '금속류'에서는 금박댕기, 금관자, 은대구 등 금·은·동으로 만든 장신구가 전시된

다. 유연한 금속의 질감과 섬세한 세공미를 느낄 수 있다.

3부 '기타류'에서는 대모갓끈, 흑단비녀, 낙죽잡 등 대모·흑단·대나무·흑각으로 제작된 장신구를 통해 재료의 다양성과 독창적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와 연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관람객은 전시 기획 의도와 전통장신구 제작 과정을 배우고, '나만의 장신구 그리기'와 '장신구 스탬프 찍기' 활동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 10분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석박물관 누리집(jewelrymuseum.go.kr) 또는 전화(063-859-4772)로 문의하면 된다.

보석박물관 관계자는 "우리 선조들은 실용성과 개성을 조화롭게 표현하기 위해 장신구를 착용했다"며 "이번 전시가 한국 전통장신구의 주재료인 보석과 귀금속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5)

농악전수관

- 오 상 근 -

4억짜리 공사를 나에게 맡기다니. 양아치나 할 짓을 내게 던져준 거였어? 정태가 나를 이 정도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 건가? 심사가 꼬였다.

청룡 사장과 통화를 종료한 뒤 정태 번호로 통화를 시도하려다 손가락을 멈췄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위험도가 높다. 반대로 액수가 적으면 부담이 적다. 입찰 참여를 가로막아도 더럽다고 침이나 한번 뱉을 뿐 경찰에 신고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데까지 정태가 신경을 써서 맡긴 건 아니겠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굴욕감이 있었지만 그 굴욕을 누를 수 있을 만큼 꿩과리와 장구가 동식의 눈앞에서 어른거렸다고 할까.

농악전수관은 고창읍에서 서남쪽으로 10여 킬로미터를 내려간 성송면 학천리에 자리하고 있었다.

전수관 도로로 접어들자 우측으로 누렇게 익은 벼들을 배부르게 품은 논들이 아래로 쭉 뻗어 있고 좌측은 몇 그루의 소나무가 푸른 하늘을 이고 서 있었다. 도로변으로 소담스럽게 핀 코스모스가 바람결에 살랑거리며 하늘과 가벼운 입맞춤을 나누고 있었다.

전수관 입구 양측에는 배롱나무가 환영하듯 붉은 꽃들을 매달고 바람에 산들거리며 방문객을 유혹하고 있었다. 예전 초등학교 자리라는데 나를 손을 뻗는 외관은 말끔하고 단정했다.

차를 세우고 내리자 장구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복편의 저음과 채편의 고음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가지런한 질서를 만들어 가을 하늘을 공명하고 있었다.

동식은 이곳에 온 목적을 잊고 잠시 멈춰서 소리를 음미하다가 정신을 차리려는 듯 눈을 몇 번 깜박거렸다. 동생 뱃을 데려올 수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무게를 올릴 필요

는 없었다. 상황을 봐서 놀려줘야 할 타이밍이 오면 그때 어게 동생들을 데려오기로 했다.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갔다. 서너 명이 자리에 앉아 사무를 보고 있었고 두세 명은 서서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모두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선량하게 생긴 사무실 사람들은 동식을 보자 곧장 경계의 눈으로 변했다. 짧은 머리에 백색 나이기 추리닝으로 감싼 통수가 나가 보이는 몸뚱이는 누가 봐도 건달임에 틀림없어 보였던 때문이다.

모두의 시선이 동식에게 향했고,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던 여자가 겁이 실린 굳은 얼굴을 하고 마지못한 듯 일어서 동식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다.

동식은 건조한 목소리로 여기 관장을 불러 왔다고 말했다. 여자는 쳐다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쳐다보는 것처럼 뻣뻣한 목으로 서 있는 사람들에게로 고개를 돌려 슬쩍 쳐다보더니 다시 시선을 동식에게 원위치하고 무슨 일로 관장님을 찾느냐고 처음 질문보다 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누가 들어도 주눅이 확실한 음성이었다.

"관장 있어! 없어!" 동식은 이마를 슬쩍 구기며 목소리에 쇠망치를 넣어 톤을 올려 말했다. 여자의 얼굴이 벌개지면서 안절부절못했다.

"제가 관장인데……, 왜 그러시지요?" 서 있던 여자 중 하나가 동식 쪽으로 걸어오며 물었다. 아담한 몸매에 곱상한 얼굴을 가진 여자였다. 관장이라 하기에 너무 젊었고 여리어 보여 동식은 지금 나를 놀리나 하는 표정으로 세모눈을 뜨고 여자를 쳐다봤다.

"관장……, 맞아요?"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지요?" 여자는 굳은 눈으로 동식을 경계했다.

남원시, 시립예술공연장 '청아원' 개관 기념공연 성료

국악단·농악단·합창단 등 3개 시립 예술단 일원화... 복합문화공간 운영

남원시가 지난 25일 시립예술공연장 '청아원' 개관 기념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국악의 고장답든 또 하나의 상징적 공간을 시설, 이 공간은 본격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한다.

그동안 남원시는 국악단, 농악단, 합창단 등 3개의 시립예술단을 개별적으로 운영해 왔었으나, 지난 2023년 「남원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함으로써 창단 40여 년 만에 시립예술단의 조직을 일원화하고, 외부 전문가 영입과 청년인턴단원제 운영 등을 통해 예술의 전문성, 다양성, 지속성을 모두 갖춘 새로운 예술단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남원시는 청소년예술단을 창단하여 국악·농악·합창 등 전통기반 예술 분야의 미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세대 간 예술의 계승과 확장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담고 있다.

이번 청아원 개관 기념공연은 시립예술단의 재정비 이후 첫 공식 협업무대로, 국악단·농악단·합창단이 함께 구성한 협업 공연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 무대를 통해 시립예술단은 통합 단체로서의 정체성과 예술적 완성도, 그리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가능성을 유감없이 선 보였으며, 이날 무대는 단순한 축하 무대가 아닌, 남원시립예술단이 지향하는 공연의 품격과 '청아원'이라는 공간의 방향성을 시민에게 처음으로 선보인 자리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남원시가 지난 25일 시립예술공연장 '청아원' 개관 기념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따라서 남원시는 앞으로 청아원을 중심으로 정기 공연, 창작 무대, 청소년예술단 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남원만의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예술의 일상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청아원은 남원의 상설 공연장이자, 창작과 교육, 교류가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 공연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이 연중 펼쳐지고, 시민과 예술가, 청소년이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문화 생태계의 중심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청아원 개관은 문화예술 도시 남원이 시립예술단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각 예술단이 단순한 공연단체를 넘어, 남원의 정신과 감성을 담은 문화 브랜드로 성장하고 시민들에게 감동과 힘을 선사할 수 있는 곳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문화재단,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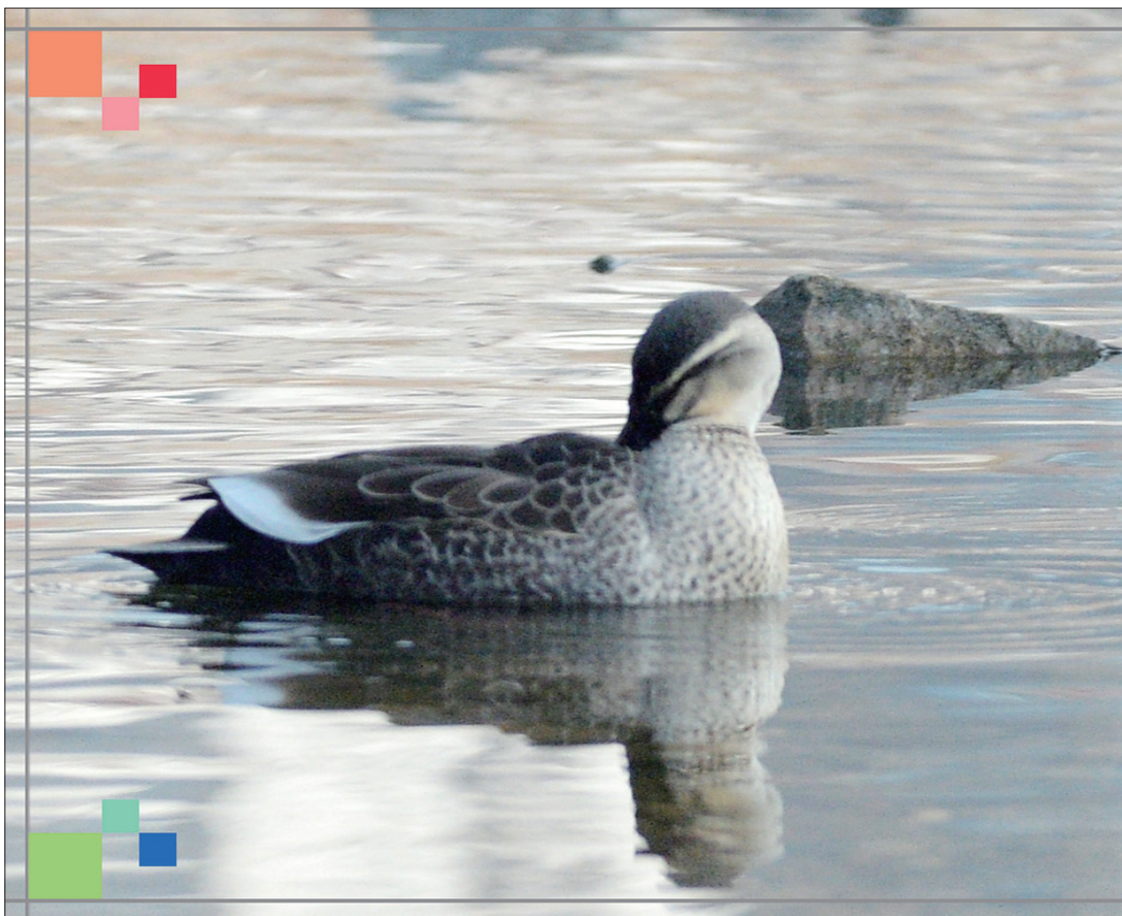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라기)은 지난 25일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무더위로 헌혈 참여가 감소하는 여름철을 맞아 혈액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헌혈은 대한신염보건협회 한미음혈액원의 이동 헌혈 차량에서 임직원들의 자발적으로 참여로 이뤄졌다.



/정은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